

통도사 대웅전과 영산회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Relations between the meanings of Tongdosa temple and Darma talk on Vulture peak

김개천* / Kim, Khai-Chun

Abstract

Tongdo templ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mples that the Buddhistic outlook on the universe and the world is well expressed.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expressive and symbolic meaning that Darma talk on vulture peak signifies by contemplating the road leading from Ilju gate to Buddha's hall in terms of Karam arrangement of the temple and the unique plane delineation of Bulee gate. It seems that Darma talk on vulture peak is related to the reason why there is no Buddha statue in Buddha's hall and why the name of the mountain has been changed considering the resemblance of its shape to India's Youngchook mountain. The present study will take this relation into account and will show the religious faith and architectural meaning with respect to this relationship.

키워드 : 영축산, 영산회상의 재현, 불법상주사상, 불이문의 경관적 틀, 금강계단, 적멸보궁, 염화법문, 삼세의 불신, 종교적 영역성, 부처님의 친견

1. 서론

불보사찰로 널리 알려진 영축산 통도사(靈鷲山 通度寺)는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의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건축들과 함께 관계 지어지는 외부공간의 연속과 분절, 공유와 위계, 변이 등의 방법은 우리나라 고건축 중에서 치밀한 복합적 구성체계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¹⁾

그 중에서도 "646년(신라 선덕여왕15)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1644년에 중건된" 통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웅전²⁾은 주변의 외부공간과 건물들과 함께 유기적 연관성과 연속적 공간체계 속에 그 정점의 승화공간을 이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문(山門)이름과 관계되는 영축산(靈鷲山)은 석존(釋尊)이 법화경(法華經)을 설한 장소로 법화경에 부처님은 열반에만 계시지 않고 지금도 영축산에 나와 제도(濟度)를 하고 있으며, 이 영축산의 부처님 주도의 법회 모임을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고 한다. 석가정토(釋迦淨土)와 그의 설법회상(說法會上)으로서의 영산회상(靈山會上)은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와 그의 설법회상(說法會上)으로서의 미타회상(彌陀會上), 미륵정토(彌勒淨土)와 그의 설법회상(說法會上)으로서의 용화회

상(龍華會上) 등과 함께 대승불교의 제불사상(諸佛思想)과 미륵정토(彌勒淨土) 등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른 석가의 설법회상(說法會上)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산회상의 개념은 더욱 일반화되어 석가의 교설(敎說) 혹은 불교자체를 의미하게 되고 불교의 상징적 표상(表相)으로서의 뜻을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불교를 표현하려 할 때 그 표현 자체를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 하기도 되는 것이다.³⁾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영산회상이 지닌 표현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통도사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 내부공간에 이르기까지의 형식적 전개 과정으로 국한시켜 통도사의 가람배치와 불이문의 독특한 실내 평면구성과 적멸보궁(寂滅寶宮)으로 불리는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이유를 영산회상과 관계하여 영축산이라는 성(聖)스러운 시·공간적 장소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영축산의 상징성과 영산회상의 장소적 실현을 통하여 성스러운 곳으로 재편된 통도사 영역의 구조적 틀과 그 속에 연관된 불교경전의 공간적 의미를 고찰하여 종교 신앙적 내용과 건축공간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안영배, 통도사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권 98호, 1981

2) 조선 사찰 사료, 상권, pp.532-534

3) 洪潤植, 靈山會上 幀畫와 法華經 信仰, 한국불교학, 서울 : 한국불교학회, 1972, p.105.

* 정회원, 이도건축연구소 대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 영축산과 영산회상에 대한 신앙적 의미

통도사는 선덕여왕의 왕명으로 당(唐)에서 귀국한 자장율사가 먼저 국가의 의제(衣制)를 당복(唐服)으로 고치는 등 정치체계에 대한 간여와 불교의 계율을 정리하여 “산문의 소승불교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⁴⁾ 고대불교의 기층을 만들었으며,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었다. 당시 7세기 중엽의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백제의 동진과 고구려의 남하와 더불어 삼국의 쟁투가 가장 치열했으며, 대내적으로는 비담과 염장의 난과 여왕 폐위론 등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한 혼란기였기 때문에⁵⁾ 여왕으로서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의 강화와 민심을 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계율의 강조를 통해 민심의 귀일이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의를 위해⁶⁾ 당나라 청량산의 문수보살로부터 받았다는 석가여래의 정골(頂骨) 사리와 여래가 입던 금란가사를 받고 해동 영축산 구룡소(九龍沼)를 지시받아 당으로부터 귀국하게 되었다 한다.

동쪽의 끝 변방의 신라 땅에 모셔진 석가의 진신사리는 “이적(異蹟)을 숭상하던 당시의 신라 풍토”⁷⁾에서 부처 그 자체로 숭앙받기 충분하였다. 그와 함께 인도 마가다(Magadha)국 왕사성(Jagrha)의 동쪽에 있던 기사굴산의 모습과 닮았다하여 영축산이라 이름붙인 것으로도 통도사는 영산회상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고려와 조선 초기 법화경(法華經) 신앙이 성행할 때, 법화경의 사경(寫經)과 더불어 의식을 통한 법화회상(法華會上)의 재현과 대영산법석(大靈山法席)의 재현을 여는 신앙행위가 성행하였다.⁸⁾ 또한 법회의식과 사경(寫經)과 창경(唱經), 그리고 영산회상 변상도(靈山會上 變相圖)가 많은 사찰의 후불탱화로 그려진 것으로 볼 때, 영산회상은 한국 불교의식 중 크게 성행하였던 의식이며, 후불탱화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찰은 영산회상의 상징적 장소로 여겨지는바 사찰을 영산설법장(靈山說法場)으로 상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영산회상은 단지 영축산에서의 법회 모임이상의 한국불교의 상징적 표상으로서의 의식이었다. 특히 통도사에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금강계단에 봉안한 자장의 대염원은 전술한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석가의 생전에 가장 많은 설법을 한 현장이며, 영산회상의 장소인 인도의 영축산으로 산명(山名)을 개명한 이유를 볼 때, 통도사를 신라 불국토의 상징적 표현으로 대변되는 영산회상의 설법도장(靈山會上 說法道場)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국사의 예와 같이 경전의 내용을 건축적으로 묘사하여 구축한 당시의 건축사례들을 통해서도 통도사는 영산회상의 경전세계를 재현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초창기(初創期)부터 있었던 영산전과 대광명전 건물의 이름과 용도는 설법회상으로서의 영산회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게 한다.

인도에는 가본 적이 없는 자장율사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산정상 부위가 독수리처럼 머리가 벗겨졌다라는 이유로 독수리산이라는 뜻을 가진 인도의 영축산과 닮았을 리 없는 양산의 천왕산을 영축산으로 개명한 이유에는 선덕여왕 재위 시 양산지방 호족 세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 등을 일으켰던 전례를 생각해보면¹⁰⁾ 산을 닮아서가 아니라 자장율사가 그곳에서 주석하여 해동불법의 대중을 펴는 동시에 금강계단에 사리를 모신 정통성을 기반으로 모든 승려와 신남신녀의 계율을 수계하며 신라일대의 호법(護法)을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정치적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도사는 영산회상의 재현을 통해 나라의 국지대찰이자 불지종가(國之大刹 佛之宗家)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3. 영산회상과 건축공간적 상관관계

영산회상의 표본(標本)을 수지(受持)한다는 신앙심은 법화경(法華經)을 수지한다는 신앙적 의미에서 연유하는 것으로¹¹⁾ 영산회상에 대한 신앙(信仰)은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신앙의 주체가 어떻게 영산회상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법화신앙의 한 특수한 형태이기도 하다.¹²⁾

영산회상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화경(法華經) 제오 여래수량품(第五 如來壽量品)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반(涅槃)을 나타내나 실인 즉 멸도(滅度)하지 않고 항상 이곳 영축산(靈鷲山)에 있어 설법한다.”는 불법상주사상(佛法常住思想)에 입각하여 언제나 상주하고 있는 영산의 제불보살을 봉청(奉請)하여 영산회상을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 영역설정으로 일상적인 경험의 내용에 포용될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경험되게 하였다. 그러한 성(聖)의 영역설정은 ① 성역(聖域)이라는 실존적 공간을 유지시키는 경계(境界). ② 출발점으로부터 목표에의 도달을 유도하는 통로와 방향. ③ 애매한 격절(隔絶)을 내포한 경계와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통로상에서의 공간적 의미(意味)의 승화 ④ 인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중심(中心) 등 네 요소의 상호유기적인

4) 고은, 절을 찾아서, 책세상, 1999, p.140

5) 洪光杓, 慈蔭의 造營觀研究, 佛敎文化研究, 4輯, 1995, pp.121-146

6) 목정배,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시대사, 1997, p.275

7) 고은, 上揭書, p.140

8) 洪潤植, 靈山會上 幀畫와 法華經 信仰, 한국불교학(서울 : 한국불교학회, 1972), p.108

9) 洪潤植, 上揭書, p.108

10) 洪光杓, 慈蔭의 造營觀研究, 佛敎文化研究, 4輯, 1995, pp.121-146

11)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上篇, p.577

12) 洪潤植, 靈山회상도화와 법화경신앙, 한국불교학, 1972, p.107

조합에 의해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건축공간을 구체화하였다.¹³⁾ 본 연구는 통도사라는 실존적 공간의 경계와 방향과 통로, 분절, 중심의 각 영역에 대해 영산회상의 실현이라는 성(聖)스러운 장소의 영역 의미(意味)로 파악하고자 하며, 다음의 여러 가지의 건축적 장치를 통해 그 의식공간을 영산설법장(靈山說法場)으로 상징화하고 성화(聖化)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1) 영산회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통도사의 산명(山名)을 영축산으로 개칭하여 이곳이 영산회상의 장소와 다를 바 없다는 장소성을 부여하여, 성역이라는 실존적 공간을 유지시키는 경계로 설정하였다.

(2) 역사적 장소성을 현실의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통도사는 배치에 있어서 마치 영축산으로 진입하여 출발점으로부터 영산회상의 설법장으로의 도달을 유도하는 통로와 방향을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가람배치는 남북 일직선상에 금당과 탑을 배치하였으나 통도사의 경우 동서의 주축과 남북의 보조축이 혼용된 특이한 배치구조를 하고 있다. 통도사의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초창기 형식은 남북배치이며 후대에 동서배치가 된 것은 지형상 남북이 좁고 동서로 길게 이루어진 계류를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의 입지적 단점들은 단점만큼 많은 건축적 해결방법들이 있으며,



<그림 1> 통도사 일주문. 불지중가이자 나라의 대찰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통도사는 산명을 천왕산에서 인도의 영축산으로 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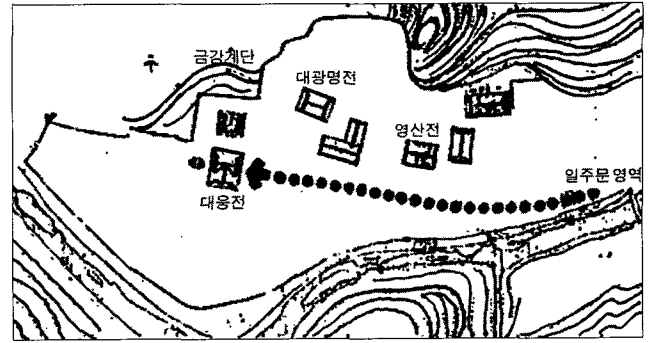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에 관계하였다고 속설로 전해지는 공주 마곡사의 경우 계류를 끼고 있는 좁은 땅의 입지이나 남북을 주축으로 물의 건너편에 해탈문과 천왕문을 배치하여 건축적 입지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극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고려 초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산전과¹⁴⁾ 함께 현재 대광명전인 미륵전도 초창기부터 창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¹⁵⁾ 자장이 관여한 사찰들 가운데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사찰이 많다.¹⁶⁾

13)한동수·이해성, 통도사 영역의 형성과정과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2호, 통권 4호, 1986,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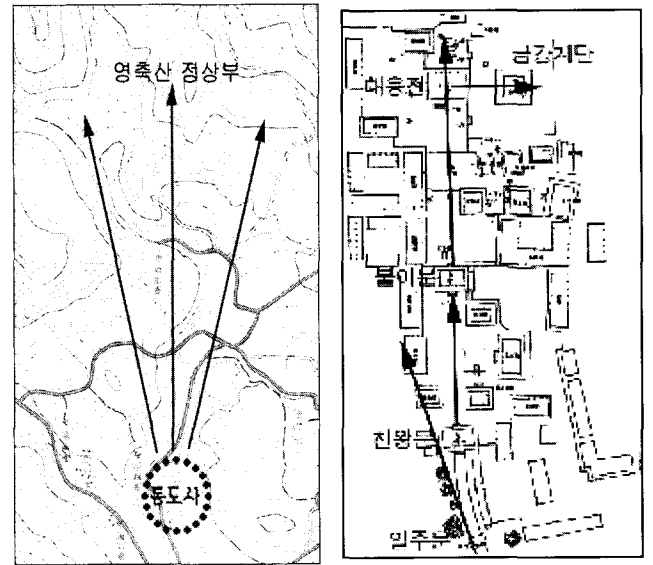
14)林忠伸,통도사 금강계단의 영조척도 고찰 (불교문화연구 2집, 영축불교문화연구원, 1991), p.104

15)洪光杓, 前掲書, p.147

16)김봉렬,이 땅에 세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p.147



<그림 2> 계류를 따라 3영역으로 이루어진 통도사의 초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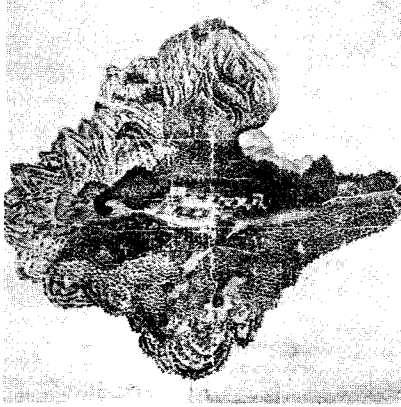


<그림 3> 일주문에서의 축은 영축산 향과는 어긋나 있으며, 천왕문의 진입과 함께 영축산과의 직선축의 방향과 통로가 설정된다. 그러나 대웅전에서는 금강계단

한동수와 이해성의 연구 등과 같이 646년 통도사의 초기에 금강계단, 대웅전, 대광명전, 영산전이 창건되었다.¹⁷⁾고 한다면 <그림 2>와 같이 계류를 따라 통도사의 3영역으로 이루어진 동·서 배치는 초창기 때부터 그러하였으며, 물론 일주문과 불이문은 고려말기인 1305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지형의 형태나 계류 때문만이 아닌 <그림 3>과 같이 동서축선 상으로 보이는 영축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림 4>의 통도사 진경도를 통해서도 통도사의 가람은 주변의 영축산 형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추론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직 풀지 못한 통도사의 건축적 의문들인 금강계단의 원위치, 대웅전의 독특한 형태, 불이문의 존재의의와 특이한 가구법 등은 모두가 영축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임충신(林忠伸)의 연구 등 여러 연구에 의하면 금강계단은 현재의 위치일 가능성이 많으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추

17)한동수·이해성, 통도사 영역의 형성과정과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2호, 통권 4호, 1986, p.19



<그림 4> 통도사 전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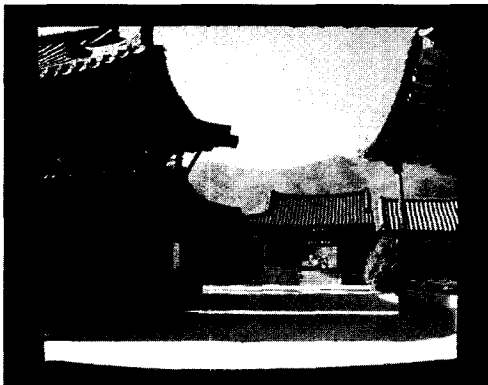
축되는 금강계단 영역은 물이 굽어 불룩한 길지에 속하는 땅으로 통도사의 현재 배치는 창건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영축산을 바라 보면서 진입하는 동서 배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논리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3)과 (4)항에서 밝히기로 한다.

(3) 석가모니라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현재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산회상 법문의 장소로 가는 길을 재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통로 상에서의 의미의 승화와 변곡, 결합 등을 만들고 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양옆으로 식재된 키 큰 상록수들과 궁형곡선(弓形曲線)처럼 휘어서 들어오게 하는 길의 형태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영축산향의 축과는 어긋나 있는 숲길일 뿐으로 마치 절로 진입하기보다는 영산회상의 설법을 듣기 위해 영축산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



<그림 5> 일주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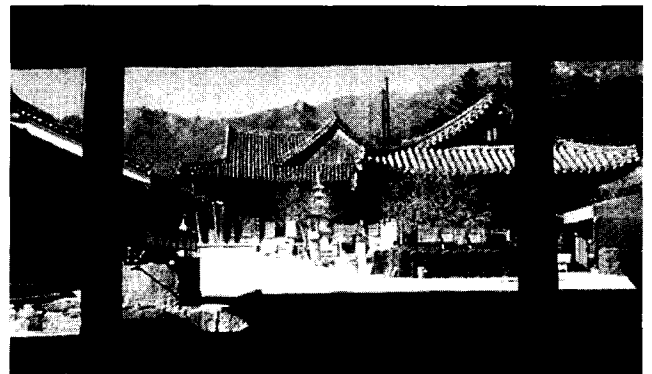
일주문 돌길은 양옆의 높은 상록수들과 휘어서 들어오는 길의 모습 때문에 영축산 초입의 산길로 들어선 것 같다.



<그림 6> 천왕문에서 불이문을 통해 대웅전까지 바라다 보이는 직선축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은 불이문 지붕 위로 뚜렷하게 보이는 영축산이다.

또한 극락보전의 처마와 범종각이 만들어내는 천왕문에서 불이문을 통해 대웅전까지 바라다 보이는 경관은 극적이고 대비적이기보다는 연결과 분절을 통해 점진적이고 확장되는 시각적 깊이와 기대감을 더해준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의 거리가 50m, 천왕문에서 불이문까지는 60m, 불이문에서 대웅전까지는 70m로서¹⁸⁾ 이 세 개의 문의 거리간격은 점점 길어지면서 형성하는 유기적 연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중요한 건축적 경관은 청기와 지붕의 불이문 위로 뚜렷하게 보이는 영축산 때문으로 천왕문을 들어서면 영축산의 성(聖)의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되게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목표에로의 도달을 유도하게 하며, 영축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치환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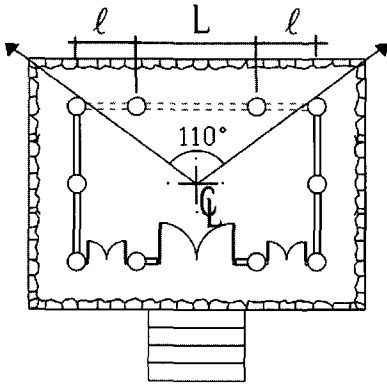
이처럼 경계와 경계를 통해 영축산이라는 종교적으로 승화된 공간은 불이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산회상의 장소성을 실현되게 한다. 천왕문과는 달리 중간의 칸을 늘린 넓은 문을 통해 불이(不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벽은 없고 호랑이와 흰 코끼리가 보를 받쳐 유난히 지붕을 높이 들어올리고 넓게 수평적으로 확장한 건축적 프레임을 통해 관음전과 대웅전의 연이은 형태가 만들어내는 상의적 중첩 관계의 건축적 파노라마를 보게 된다. 그곳에서 건축들은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으나 대웅전이 정점이 아닌 <그림 7>과 같이 그 연이어져 있는 건축의 너머로 영축산이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의 배례객은 <그림 8>과 같이 정면에는 벽과 문이 있으나 배면에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불이문의 중심에서 영축산을 바라보게 한다. 이때 영축산이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중앙의 2개 기둥 간격 <L>은 <l>과는 달리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그 시야는 인간의 눈이 편안한 동시에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약 110°의 각도로 계획하였다.



<그림 7> 불이문 내부의 전경.

불이문을 들어오면 넓고 높은 건축들을 통하여 대웅전 너머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영축산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하여 상로전은 영축산의 영역으로 편입된 영산회상의 세계가 된다.

18) 안영배, 통도사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권 98호, 1981, p.3



<그림 8> 돌이문 평면도.

그것은 영축산의 경관적 효과를 보기 위해 유난히 넓고 높은 것으로 속(俗)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영축산을 담아내는 경관적 프레임이다. 불이문을 통해 부처의 세계로 진입한 그곳은 건축적 세계일 뿐 아니라 영축산의 내부로 들어온 영산회상의 법문장소이다.

그리하여 네모반듯한 축대와 함께 건물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인도의 영축산은 아니지만 만약 석존이 상징적 영축산의 저편인 대웅전에서 염화법문을 설하고 있다면 인도의 기사굴산이 부처가 법화경을 설하신 영산회상의 장소이기에 영축산이 될 수 있듯 이 땅의 천왕산은 인도에서의 과거의 일이 아닌 이 땅에서의 오늘과 미래의 시공(時空)으로서의 영축산이 되어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4) 염화법문과 염화미소의 역사적 사건 등을 연장시켜 현실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인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중심공간을 영산회상의 영역으로 실재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비록 여러 차례 증수되었지만 장충식의 「한국석조계단과찰(韓國石造戒壇考察)」 등의 연구를 통해 금강계단은 통도사 초창시(初創時)에 조영(造營)되어졌으며, 수차례의 증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당시의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초창기의 위치로 추정되는 대웅전은 네 개의 마당이 우교형(隅絞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북측의 금강계단의 영역과 주변건물과 합쳐져 만자(卍字)형 배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동쪽에는 적멸보궁(寂滅寶宮), 서쪽에는 금강계단(金剛戒壇), 남쪽에는 대웅전(大雄殿) 등의 세면의 현관을 가진 건축의 모습과 정(丁)자형의 특이한 지붕의 모습 역시 일조를 하여 마치 만자(卍字)의 의미와 같이 공간과 시간이 한 점에서 만나 완성된 극점에 운동감이 덧붙여져 시간과 공간이 비교정적이며 동시에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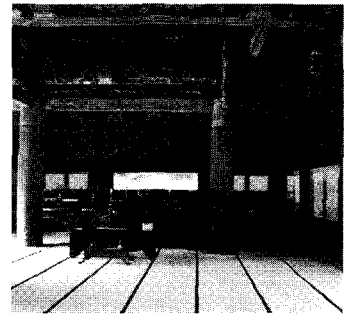


<그림 9> 정(丁)자형의 대웅전 남서측 모습
합각지붕에서의 합각면은 측면이기 때문에 대웅전은 정면이 없는 건축이다. 단지 북측방향에서만 정면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반적으로 삼면에서의 정면성을 획득하기 위해 정(丁)자형을 하고 있다고 하나, 합각지붕에서의 합각면은 측면이기 때문에 대웅전은 정면이 없는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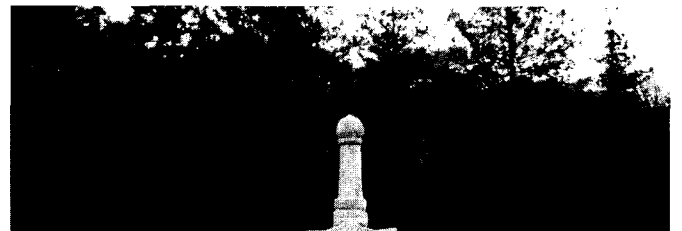
또한 북측에는 대방광전(大方廣殿)이라는 현관이 걸려있었으나, 1993년 설법전(說法殿)을 지으면서 편액을 그곳으로 옮겨 달았다. 세면만이 정면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건축적으로는 북측의 금강계단면이 <그림 10>과 같이 정면으로 보인다. 대웅전은 정점의 공간이 아닌 “금강계단에 부속된 일종의 설계당(說戒堂)이고 또한 사리계단(舍利戒壇)에 대한 예배소(禮拜所)였던 것이다”. 그와 함께 금강계단(金剛戒壇)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탑과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대웅전에 탑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단(戒壇) 역시 정점의 공간이 아니다.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법(法)의 상징인 석등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흔히들 금강계단에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기에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불상은 없으나 법(法)의 상징이라고 하는 석등의 일지(一支)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있다.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내부의 열려있는 창을 통해 푸른 숲을 배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마치 석존이 오른손으로



<그림 11> 수미단 뒤의 열려진 창으로 비어있는 공간 속에 갓 피어오른 연꽃 한 송이만이 숲을 배경으로 보이는 대웅전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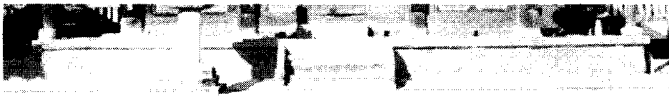
갓 피어오른 듯한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모신 상징적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진신사리를 상징하는 어떠한 형태나 탑이나 부도가 아니라 연꽃 한 송이로 대웅전을 성별화(聖別化)하여 대웅전을 종교적 중심영역



<그림 12> 대웅전 불단 뒤로 보이는 전경

대웅전에는 금강계단에 진신사리가 모셔져있어 불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숲을 배경으로 연꽃 한 송이만이 있어, 그대는 “염화묘심의 이치를 아는가”라는 말없는 염화법문(拈華法門)을 하고 계신 공(空)의 석가세존을 친견하게 된다.

(宗教的 中心領域)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신라시대 대에 조성된 대웅전 건물의 기단부와 계단에 조각된 연화장식을 보더라도 연꽃은 초기 대웅전 건물의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대웅전의
연화석단과
석계연화문(石階蓮花紋)

또한 석등은 근세에 지어진 것이나 자장이 건립했을 당시의 금강계단의 모습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전후소장사리조(前後所將舍利條)에 “2층의 단 위에 돌뚜껑을 얹어놓은 것 같았다. (壇有二級 上級之中 安石蓋如覆)”는 것으로 보아 현재와 그 모습이 유사하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석등 위의

연꽃 역시 예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신의 상징으로 사리탑을 조성하여 진신사리로 상징되는 부처의 형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득불신(得佛身)의 산스크리트어인 붓다 사리라 프라브하와나(Buddha saria prabhavana)의 뜻인 불신을 득한다는 원래의 의미와 같이 그것은 단지 불신(佛身)의 형상 재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대웅전의 연꽃은 참배객에게 부처의 진신사리나 불신(佛身)의 재현이 아닌 실제의 부처를 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웅전 북측 주련의 한시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 지 몇 해인가 문노니 (示跡雙林間幾秋)
문수보살 보배를 모시고 때와 사람을 기다리네 (文殊留寶待時求)
부처님 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全身舍利今猶在)
많은 군생들 예 올리기를 쉬지 않네 (潛使群生禮不休)

이와 같이 영산회상의 실현으로 상징되는 대웅전의 장소성과 부처님이 지금도 대웅전의 적멸보궁(寂滅寶宮)에 있으며 시기와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 올리기를 끝없이 한다고 적혀있는 주련의 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 대웅전의 건축적 회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불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신(法身)과 화신(化身) 그리고 보신(報身)의 삼신(三身)을 공시적(共時的)으로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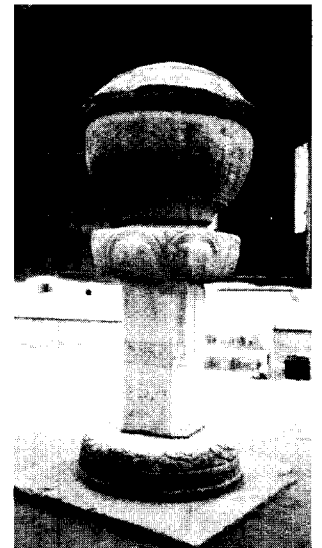
부처의 형상으로 조각된 몸이 아닌 법(法)을 상징하는 석등으로 부처의 법신(法身)을, 부처의 손과 같은 일지(一指)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부처의 화신(化身)을 이룩하였으며, 금강계단에 안치되어 있는, 진신사리는 보신(報身)으로서 미래 불신(佛身)의 상징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신(佛身)을 이룩한 부처님은 그 수미단 뒤의 열려있는 창 의 비어있는 공간의 형상을 통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석존이 연꽃 한 송이만을 손에 들고 설법 대신 말없이 보여주니, 제자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

소(拈華微笑)의 순간을 삼세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상이 없는 대웅전의 빈 공간은 부처님이 참배객들에게 그대는 연꽃을 들고 있는 이 뜻을 아는가? 라는 염화법문(拈華法問)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만(卍)자의 외부공간으로 중심을 이룩한 금당에서 실제 석가모니 부처가 상주하여 친견하는 것보다 더 극적이다. 부처의 본상(本像)이라고 할 수 있는 공(空)의 모습으로 연꽃을 들고 있는 실제하는 석존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문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 석가세존이 계신 전각 대웅전을 실현한 것이며, 영산회상 불국(靈山會上 佛國)에서 이루어진 염화미소의 순간을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도 실현하여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종교적 현현(顯現)으로 구현한 항구적(恒久的)이며 성스러운 종교적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건축적 장치 외에 역사적 기록들을 재현하여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도사에는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금란가사(金襴袈裟)로 상징되는 유구(遺構)로서 석가모니 진신의 관념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후대에 세워졌지만 <그림 14>와 같이 미륵전 앞의 봉발탑을 통해서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섭과 같이 염화법문을 증득한 자(者)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가섭이 석가의 발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그림 14> 석조봉발(石造奉鉢)

가섭의 봉발탑(奉鉢塔)은 석가세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 후에 출현할 미륵부처를 증명하기 위한 신표(神標)인 동시에 56억 7천만년 후라는 미래의 시간은 그 시간적 거리보다 오래된 것보다는 짧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일 수 있는 의미로 대웅전에서 염화미소의 의미를 깨달은 배례객은 지금이 순간순간 성불(成佛)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봉발탑으로 증명하게 하는 종교적 염원을 엿볼 수 있으며, 진신사리는 미래의 과덕(果德)으로도 연유할 수 있는 보신(報身)으로서의 상징적 영역의 거점으로서 확장될 수 있었다.

4. 결론

통도사가 부처의 사리와 가사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

라의 대찰(大刹)과 불가(佛家)의 종찰(宗刹)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신사리를 봉안한 절은 이 땅은 물론 인도와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자장율사 역시 100개의 사리를 3곳에 나누어 불사를 하였었다. 또한 영축산명을 인도의 영축산형과 닮았다하여 이름 붙였다면 그것은 종속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모방에 불과한 사대사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통도사의 영축산은 영산회상의 장소를 실현함으로써 인도의 영축산형과 닮은 것이 아니라 영산회상의 장소로 통하기 때문에(此山之形 通於 印度靈鷲山形) 영축산이다.¹⁹⁾

창건이래 끊임없이 신·개축이 이루어졌기에 그 정확한 모습은 없지만 현재의 대웅전을 구상한 자(者)는 진신사리와 가사의 봉안의미와 해석을 영축산과 통하는 통도사로 성취하고자 하였다. 인도의 영축산은 부처가 생존해있던 역사상의 한순간 밖에 이룩하지 못했던 과거의 영산회상의 장소였으나 이 땅의 영축산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부처가 상주(常住)하는 영산회상의 순간을 이룩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게 하는 종교적 염원과 회구의 실현이었다.

그것은 서양에서는 191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학적 표현을 성취한 것으로 근대 영미 시단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에즈라 파운드가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서는 사물의 실재는 파악할 수 없다며, 언어적 이미지로 사물의 실재상을 정확히 제시하려 하였던 이미지즘과도 유사하며, 나아가 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연꽃을 통해 경건한 동적 이미지는 물론 진신사리로서 삼세의 시간적 이미지까지도 실현하여 불상이 없음으로 공(空)의 부처성을 실재하게 한다. 그리하여 창문을 통하는 건축적 장치와 함께 진신사리의 상징성과 석등의 연꽃과 자연의 숲과 빛만으로 부처를 실현하고 있으니 대웅전의 건축은 곧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부처성의 실현이며, 그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의미와 상징은 미래의 시간성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종교적 영역으로 관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처를 친견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영산회상과 관련하여 통도사 대웅전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건축적 이상과 그 수단을 밝히고 이해하는 연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통도사 영역의 형성과정과 이유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웅전과 불이문의 내부건물의 형식과 구조와 관계되는 제반 연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통도사의 여러 가지 건축적 의문사항인 불이문의 형식이나 대웅전의 특이한 양식과 탑이 없는 이유 등을 고찰할 경우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통도사의 대웅전은 종교 공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뿐 아니라 인도 땅에서 전래된 외래종교로서의 불교만이 아닌 이 땅에 영산회상을 실현하게 한 독자적으로 승화

된 불교를 구축하여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한 한국불교의 진보적 성취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1. 안영배, 통도사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권 98호, 1981
2. 조선 사찰 사료, 상권
3. 洪潤植, 靈山會上 頓畫와 法華經 信仰, 한국불교학, 서울 : 한국불교학회, 1972
4. 고 은, 절을 찾아서, 책세상, 1999
5. 洪光杓, 慈蔭의 造營觀研究, 佛教文化研究, 4輯, 1995
6. 목정배,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시대사, 1997
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篇
8. 林忠仲, 통도사 금강계단의 영조적도 고찰, 불교문화연구 2집, 영축불교문화 연구원, 1991
9. 김봉렬, 이 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10. 이기영 외, 통도사, 대원사, 1991
11. 한동수·이해성, 통도사 영역의 형성과정과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2호, 통권 4호, 1986.

<접수 : 2002. 4. 30>

19) 이기영 외, 통도사, 대원사, 1991, p.119. 통도사 명칭유래에는 爲僧者通而度之 또는 通諸萬法度濟衆生 등 여러 설이 있다.